

이기웅의 영혼도서관



추석 명절,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가을이다. 어느새 청명한 계절이 높푸른 하늘을 떠받들면서 무더위에 지친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섰다. 둔근 추석 달이 동산 위에 휴동그렇게 떠올랐다. 내 고향 강릉 선교장(船橋莊)에서의 추석 풍경이 소슬한 가을 바람과 함께 나의 주억 속에서 오롯이 떠오른다.

지금으로부터 오륙십 년 전에는 '고된 농사일'과 '슬픈 가난'이라는 두 등짐이 우리들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지난 속에서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풍요로운 가을걷이 한가위 때면, 배고픔과 더위에 지친 착한 농부와 그 가족은 만복감에 젖는다. 이 계절은 한 해의 노고를 스스로 위로하고 풍년을 자축하는, 이를테면 우리식의 추수감사절이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추석 명절이 된 것일 터이다.

날이 어두워지자, 선교장 뒷동산엔 손불을 든 동네 아이들이 폐지어 달을 향해 소리친다. "만월(滿月)이요~." 지난했던 시절의 달맞이 마음은 어느 보름보다도 한가위 때가 제일이었다. 아이들의 소리는 풍요로움을 살고 온 가을곡식을 예찬하는 노래처럼 아름다웠다. 갖가지 햇과일들이 아이들의 입맛을 채워 주었고, 복에 겨운 그들의 외침은 멀리멀리 가을 들판에 울려 퍼졌다.

선교장 집안을 비롯한 마을의 여려 집들

은 그들의 가세(家勢)에 맞춰 제례(祭禮) 준비를 서두른다. 대부분이 이곳 농경 마을에 뿌리 내리고 살아온 집안들이다. 가족들 가운데에는 간혹 타향살이를 하던 사람이나 일시적으로 외지에 나가 있던 이들도 빠짐 없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다.

제사(祭祀)는 가족들끼리 또는 집안끼리의 오랜 유형을 갖는다. 제사는 성묘(省墓)로 이어진다. 모두가 추우보분(追遠報本)의 깊은 뜻을 두면서 오늘의 가족들의 결속과 안녕과 배움을 도모하는 뜻이 크다. '주임'이나 '보본' 모두 인간존재의 근원을 향한 간절한 열원과 소망, 그리고 조상을 향한 존경과 그리움을 담고 있다.

그때 그 시절, 추석에 모인 가족들은 무슨 말들을 주고받았을까. 그때로부터 육십 년이 지난 요즈음 우리네 가족들은 모여 무슨 이야기들로 꽃을 피울까. 육십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두 세대 사이의 이야기들을 비교해 보고 싶어졌다. 이런 관심은, 오늘의 우리 사회가 지나고 있는 가치관의 깊이를 알고 싶어서이고, 이것이 바로 사회문화적 구조나 무게를 가늠해 보는 중요한 관찰이리라는 믿음에서이다.

독일의 문예이론가 발터 벤야민은 '일방 통행길'이라는 글에서 '자유롭게 서로 애야

기를 주고받는 일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 이전에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방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 당연했으나, 지금은 상대방의 구두나 우산 값을 물어보는 게 고작이다"라고 적고 있다.

2차 세계대전 훨씬 전의 글이다. 전쟁이 끝날 무렵부터 20년 사이인 내 어린 시절의 추석절을 떠올려 본다. 그때로부터 오십 년이 흐른, 바야흐로 전자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추석 명절에서 어떤 뜻과 의미를 찾을 것인가.

옛집 선교장 사방방에 모인 어른들은 마을에서 놀 만나는 이들이 대부분이라, 그저 차분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 논쟁적이지 않았다. 위아래 없이 남의 말을 경청하는 분위기다. 예법도 있어 좌중엔 교감의 흐름이 조용히 흐른다. 대화에 끼어들어 흐름을 방해할 어떤 미디어도 없다.

농사(農事)일이 화제의 주류를 이룬다. 농사일에 관해 무슨 할 말이 많겠냐고 물으면, 그건 너무 모르는 말씀이다. 농사를 빌미 삼아 하늘과 흥의 이치, 인간의 이치 그리고 우주의 섭리를 논할 어느 구석마다 찾을 수 있게 돼간다.

이렇듯 안타까운 추석 명절을 앞으로 얼마 동안을 맞이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모든 과정에서 절제와 조화와 균형, 그리고 인간애로 가득한 처분(處分)과 처신(處身)이 요구되는 일 아니던가.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가난이 축복일 때가 많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반대로, 부유함이 재앙을 불고 올 때가 많음을 경고하는 이들이 많을지도 사실이고, 이러한 징후들은 많이 있다. 한가위 때 가족끼리 모이는 본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온 국토가 대이동의 행렬로 몸살을 앓는다. 기를 써 가며 모인 가족들이 이상일 동안 나누는 대화들은 과연 어떨까.

내 어린 시절에 비해 지금 우리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다. 모처럼 사방방에 모인 식구들이 나누는 화제에서부터, 그 대화마저 방해하는 텔레비전이며, 집안 이 구석 저 구석에 흘러져서 스마트폰에 코를 박고 있을 짚은이를 하며,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동하는 차 안에서 풍작거리는 오디오들의 소음 때문에 우리는 참된 인간의 대화, 곧 하늘의 이치, 땅의 이치, 인간의 이치 그리고 우주의 섭리를 논할 어느 구석마저 찾을 수 없게 돼간다.

이렇듯 안타까운 추석 명절을 앞으로 얼마 동안을 맞이해야 하는 것인가.

〈열회당 대표〉

온펜칼럼



송민식
국립대학법인 UNIST 위촉임학사정관

추석에는 스마트폰을 잠시 꺼두자

수일투족이 공개되는 유리알 같은 투명한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모처럼 서울에 가는 날이면 지하철을 이용한다. 빈자리가 날 때까지 서 있노라면 자리에 앉은 짚은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여념이 없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을 검색하고, 어떤 사람은 문자를 주고받는다. 내일 때까지 모두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대단한 집중력이기도 하지만 전자기기의 예속이 아닐 수 없다. 요즘 지하철에 앵벌이들이 보이지 않는다. 스마트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구걸도 높이 마주쳐야 하는데 사람들이 핸드폰만 들여다보니 이해도 된다.

이렇듯 흔을 쑤 빼놓은 스마트폰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일까?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면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아주 영악하게도 사람을 옮기고 있음을 본다.

하지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스마트폰을 하지 않으면 웬지 고리타분하고,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이슈들을 모르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묘한 기분이 드는 것은 왜일까?

요즘 사람들은 아침에 눈뜨자마자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찾고, 화장실 갈 때나, 밥 먹을 때도 손에서 놓지 않는다. 지하철에서도, 환승하기 위해 계단을 오를 때도, 컴퓨터 부팅 시간조차 잡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켜는 이들도 적지 않다. 스마트폰을 멀리 놔뒀을 때 초조함을 느낄 경우 '스마트폰 중독'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짚은이들 수록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들의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한다. 그 과정에서 SNS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본다.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생긴 새로운 문화가 아닐까 싶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엄격히 구분되어 왔던 공공장소와 사적장소의 경계가 허물어져 가고 있음을 본다. 그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데 따른 부담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축구선수 기성용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 것을 보았다. 친절함과 편의성을 자랑하는 SNS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다.

정보의 흥수 속에서 자칫 우리는 스마트폰의 주인이자 노예일 수 있다. 주인으로 쭉 남으려면 자각의 시간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들여다보느라 충혈된 눈을 잠시 불일새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시간을 정해놓고 경계로 탈출을 시도해보자. 예전에 '잠시 휴대폰을 꺼두셔도 좋습니다.'라는 광고처럼 일주일에 하루쯤 서랍에 넣어두고 살았으면 한다.

영국 속담에 '느리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란 말이 있다. 민족의 대 명절 추석이다. 성묘길을 다녀오고, 친인척을 만나는 하루만이라도 스마트폰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권하고 싶다. 이어폰을 뽑고 대자연의 숨소리를 들으며 보름달과 함께 뜻다한 이야기꽃을 피워보자. 풍성한 한가위가 될 것이다.

온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온펜클립' 회원들의 칼럼을 신는 코너입니다.

기고



전동호
전남개발공사 개발본부장

햇빛, 바람, 시간 그리고 염부와 소금

나 응기파편, 것벌에 활토층을 다져 편평하게 마무리한다. 토관은 물러지지 않게 자주 다져줘야 하는 등 노동력과 시간, 비용이 몇 배이나 생산량은 턱없이 적다. 토판소금은 알아주는 이 많지 않고 가격을 몇 몇 곱 받아 도 나는 게 별로지만 그 성분 가치는 최고다.

염부는 결정지에서 햇빛의 칼같에 눈이

찔리기도 하고 밭을 늘 해수에 절여있으면서도 오후 한나절을 저녁놀이 흥이 될 때까지 쉼없는 대파 질을 한다. 손은 이미 갈

퀴요, 어깨뼈는 경총 솟고, 유품 들어간 두

불에 성긴 머리칼과 구리 빛이 된 육체를 이

벌이 끝나면 저 밭에서 마치 천지창조인 마

냥 밀어내기를 수백 번 한다.

누구나 같이 염부의 몸에도 0.9%의 염분이 필요하지만 극한 노동과 피어린 단심을

다 밭에 귀한 손님 맞이하느라 내 몸의 소금

은 다 빼내나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 위에 고

꾸라져 한 입 가득 오신 소금을 머금은 채

일없는 저 세상으로 먼저 가기도 한다.

소금밭은 잔자갈과 잡초들이 범벅된 비포

장 길, 짠맛에 견디도록 안으로 기울여지고

여기저기 뒷배 외벽과 송반 바닥에 녹은 학

석지붕 참고, 염부들 속소, 잠시 쉬어가는

낡은 의자 그리고 외발수레, 대파가 여기저

기고 그 너머 갈대숲으로 자백질하는 새들

도 함께한다.

박범신 님의 장관소설 '소금' 이야기다.

소금은 얻는 방법에 따라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킨 천일염과 전기분해해서 얻는 정

제염, L글루타민산을 첨가한 맛소금 등이

천일염은 전 세계 소금의 30%에 불과하고 프랑스 계란드소금(Terra De Sel Guerande)이 제일 유명하지만 우리나라 서해안 천일염의 질(염화나트륨 Nacl 81.7%)과 마그네슘, 아연 등 넓져나는 천연 미네랄 함량은 따라오질 못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80% 이상인 마그네슘 결핍증을 다 해결할 수 있고 니트륨 배설을 촉진하여 혈압도 조절하니 잘라내고 같아 끼우고 페매고 활성제 먹이는 병원처방과 함께 면역력을 키우고 만물을 살리는 약이 된다.

천일염은 철 따라 맛깔을 더한다. 봄에는 조기젓과 꽈리젓, 초여름 햇석어젓, 한여름 오징어젓, 가을엔 어리굴젓이 되며 새우는 오젓, 육젓, 주젓, 동백젓, 새하젓이 된다.

'대학'에 나오는 말이다. '심부재언 시이 불건 청이불문 식부지기미'.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그 마음이 세파에 변질되거나 않도록 '천일염'으로 잘 간해지 맛을 다 겪었다.

계절 따라 열리는 축제에서도 언제나 함께하며 위로와 사랑의 단맛, 시비의 신맛,

어둠의 쓴맛, 옹골찬 인생의 짠맛 등 오만가지 맛을 다 겪었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가족의 소중함 일깨우는 추석 명절 돼야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이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추석은 평일과 주말이 겹쳐 5일 연휴가 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이동하는 인구도 3500만 명이 넘어서 것으로 보인다. 명절마다 전문학적인 사람들이 가족을 찾고, 차례와 성묘를 하는 것은 한민족의 예로부터 실천해온 미풍양속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국이 도시화되고, 핵가족화되면서 가족의 유대감이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추석 명절이라도 마음을 푸근케 하는 가족, 친지들과의 만남은 그만큼 소중해진다.

만나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시피 한 일상을 벗어나 가족들과 서로 정을 주고 나누다 보면 훨씬 마음이 넘쳐나게 된다. 지금까지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 또 다른 내일을 계획하게 된다. 가족의 소중함을 새기면 새길수록 가족을 넘어 이웃과 사회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

'무리한 징계'였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교육청으로서 소청심사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거나 복직을 시켜야 하는 것도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방적으로 조강역 징계의 칼을 휘두를 것이 확근이 된 것이다.

여기에 시교육청은 지난 13일 보직 임명과 근무성적 상황을 해주겠다며 교사로부터 돈을 받은 초등학교 A교장을 해임하고, C교사를 1개월 감봉 처분했다. 그러나 B교장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교육부 소청심사위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비리를 두둔할 수는 없다. 백년 대계를 만들어 가는 교육현장이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획일적인 잣대를 들여 모든 일을 결정해 버리면 이번 사례와 같은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광주교단을 불신의 높으로 빠트릴 위험성도 크다. 시교육청에 균형 잡힌, 신중한 행정을 주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無等鼓

회사가 자리한 곳이 옛 전남도청 앞, 금남로다. 상징적인 의미가 깊은데다 광주 한복판이 많은 행사가 열리는 장소다. 다양한 주장을 하는 집회와 거리 시위, 축제나 문화 이벤트 등이 연중 행사를 치러온다.

지난 12일 구호 소리가 둘려 차창밖으로 내다본 현장은 낯설었다. 여느 시위 행렬과 달랐다. 시위대의 맨 앞에 선 이들은 신부와 수녀들이다. 1000여명이 넘는 신도들이 뒤를 이었고, '국민의 힘으로 국정원 개혁' 등의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히말리아 핑크소금 등 유명브랜드와는 가격차이가 백배 가까이 난다. 우리의 전일 염이 제 가치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흥보, 판매와 이미지 관리 등에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수학의 계절을 알리는 추석명절날, 가족, 친지, 동료, 선배 등 언제나 그리운 분들께 우리의 천일염으로 육전, 생선전, 굽전 부침 때, 오이도리자지부침에 맛을 더 하